

최근 멕시코 경제 동향 분석

(2010. 8. 16)

멕시코시티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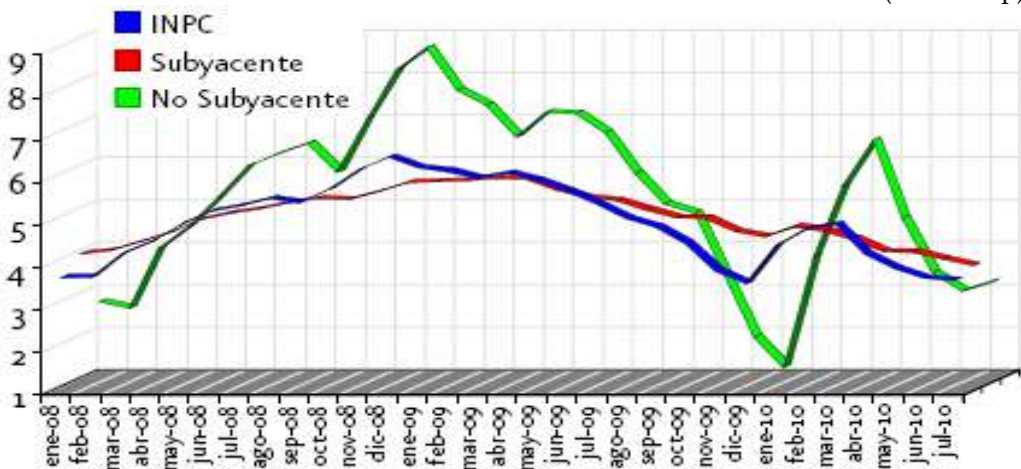
1. 멕시코 경제 동향

□ 2010년 7월중 인플레이율은 0.22%

- 멕시코 중앙은행은 7월중 월간인플레이율이 0.22%로서 2003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율을 기록하였다고 발표.
- 물가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2003년의 연간 인플레이율은 3.64%이었고, 2010년 7월까지의 누적인플레이율은 1.61%를 기록하고 있음.

연간물가상승률

(단위 : %p)
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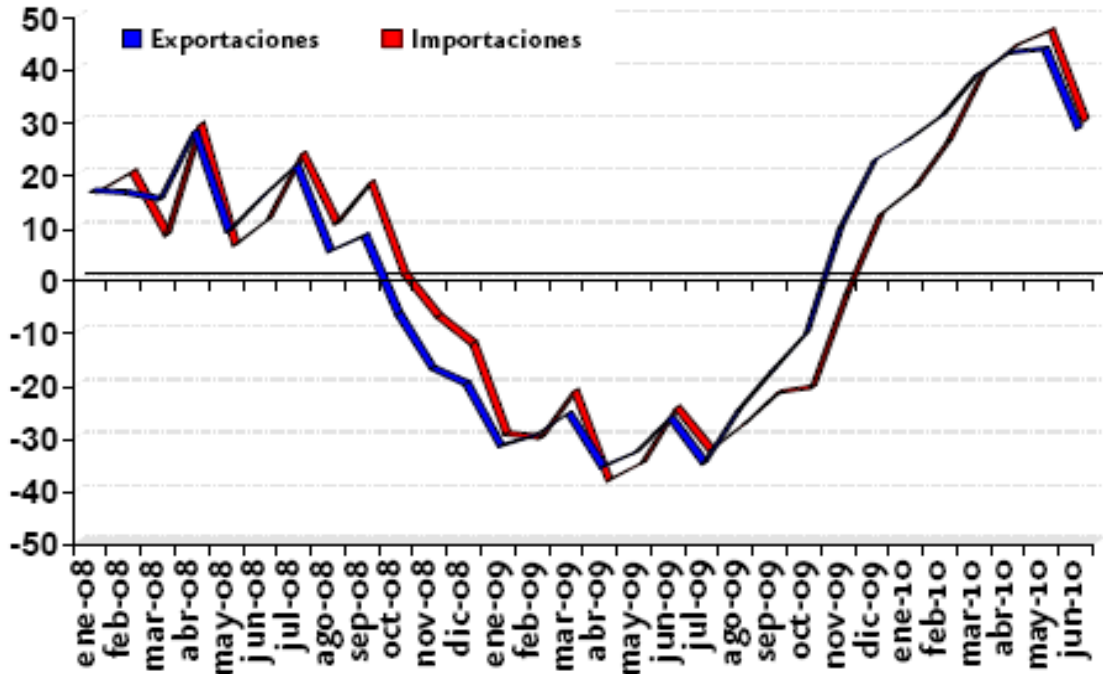
□ 6월중 무역수지 적자 34.1백만 달러

- 6월중 무역수지는 34.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의 1억 68백만 달러에 비해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. 2010년 상반기 중 무역수지는 3억 1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.
- 6월중 수출은 28.8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(비석유부문 35.3% 증가, 석

유류제품 △7.9% 감소), 수입은 29.5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.

수출입추이

(단위 :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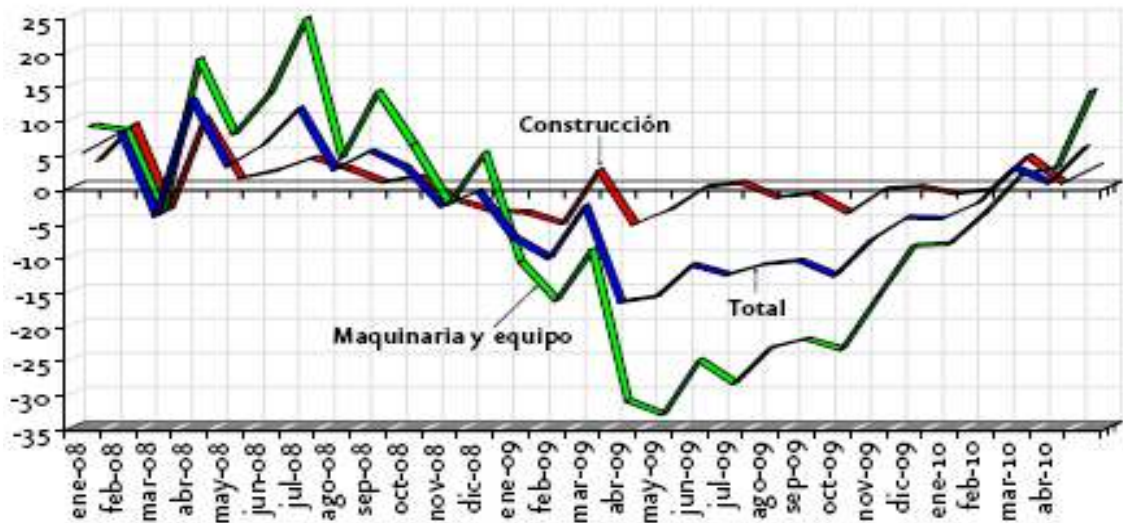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5월중 고정자산투자는 6.2% 증가

- 5월중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6.2% 증가되었는데 이는 16개월 연속 하락 후 증가세로 반전된 이래 3개월 연속 증가로서 2008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 수치임.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에 대한 고정자산투자가 13.9% 증가하여 크게 증가한 반면, 건설부문은 2.6% 성장하는데 그침.
- 계절성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 총고정자산투자는 5월중 1.13% 성장하였음.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는 6.09%, 건설부문은 0.46% 성장하였음.

부문별 고정자산 투자

(단위 :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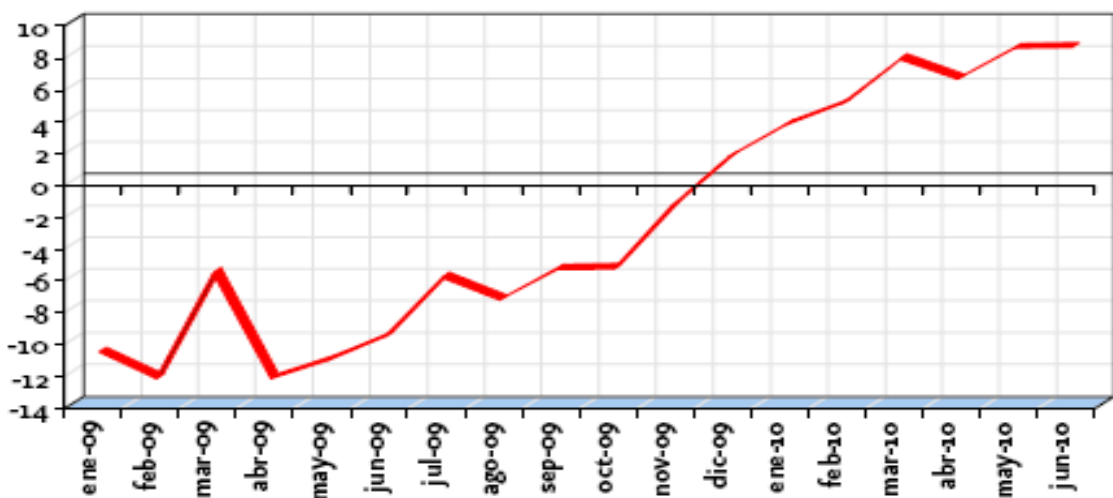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6월중 산업생산지수 8.45% 증가

- 6월중 산업생산지수가 5월의 8.41%에 이어 6월에도 8.45%로 증가되어 2000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. 각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15.2%, 광산업이 4.9%, 전기·가스·수도가 4.3% 성장하였고, 건설업종은 4.1% 감소하여 건설업종이 아직까지 불황임을 보여주고 있음.

산업생산지수 추이

(단위 :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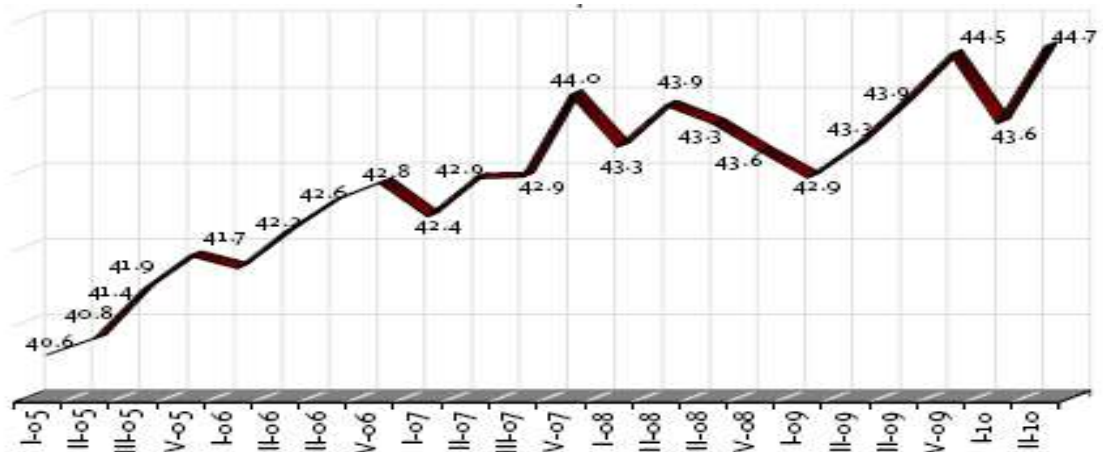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경제전체 고용인원은 44.7백만명

- 2사분기중 멕시코의 1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총 47.1백만 명이고 이 중 94.9%인 44.7백만 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임. 이중 남자는 27.8백만 명이고 여자는 16.9백만 명임. 총 고용인구는 2009년 2사분기에 비해 1.3백만 명이 증가함.

총고용인원

(단위 : 백만명)


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8월 6일 현재 외환보유고 1,056.22억 달러

- 8월 6일 현재 멕시코의 외환보유액은 1,056.22억 달러로서 이는 지난주의 역사상 최고치보다 7억 45백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임. 동 외환보유액은 2009년 말에 비해서는 147.84억 달러가 늘어난 수치임.

주간 외환보유고 추이

(단위 : 10억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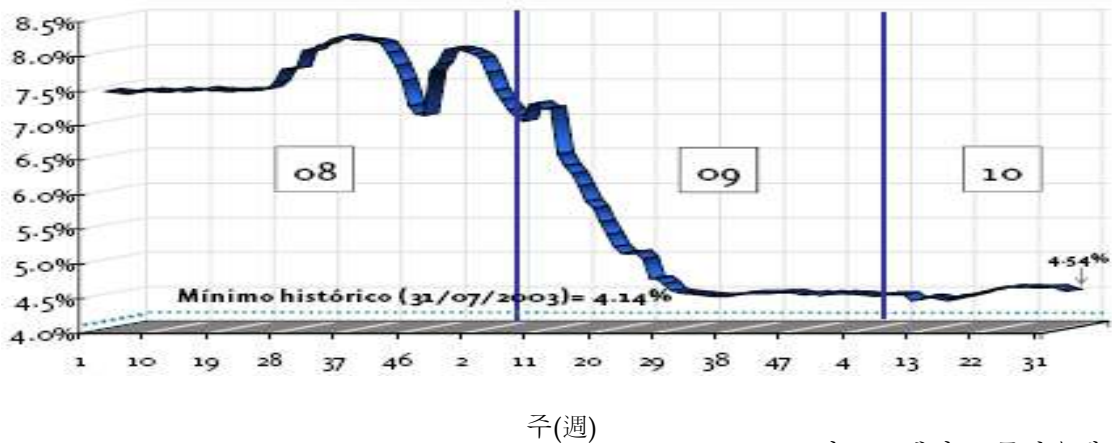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멕시코 기준금리(28일자) 전주대비 하락

- 8월 10일자 멕시코 기준금리(28일자)는 전주 대비 6bp 하락한 4.54%를 기록하였으며, 기간별로 3개월물(91일자)은 전주 대비 2bp 하락한 4.63%를 기록하였고, 6개월물(182일자)은 전주대비 각각 1bp 상승한 4.72%를 기록.

연도별-주별 기준금리 동향 (CETES 28일물 기준)
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페소 달러 환율 상승세(페소화 약세)

- 8월 13일 기준 페소/달러 환율은 전주보다 7.1센트 하락하여 달러당 12.7256페소에 마감.
- 2010년 중 달러대비 평균 환율은 12.6863페소를 기록하였고 이는 페소화 가치가 전년 말 대비 34센트(-2.6%) 평가절상된 것임.

페소화 환율 동향(2008~2010)

(단위 : 페소/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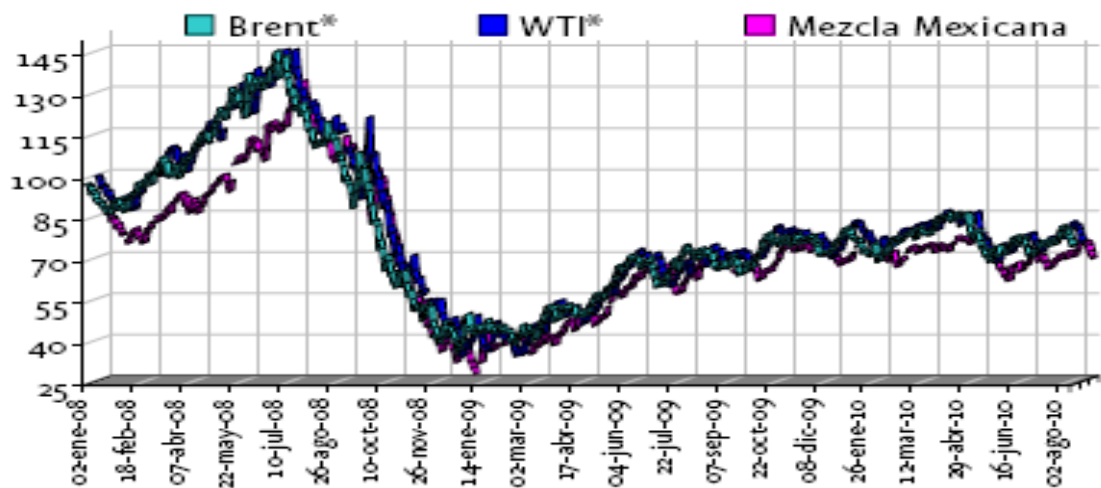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원유수출가격

- 8월 13일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68.36달러/배럴로 전주대비 5.02달러/배럴 하락하였음.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2010년들어 5.07달러/배럴이 하락하였으며, 평균 수출가격은 70.44달러/배럴임.
- 한편 서부텍사스중질유의 선물가격은 배럴당 5.31달러 하락한 75.39달러/배럴를 기록하였고, 북해산브렌트유의 선물가격은 배럴당 5.05달러 하락한 75.11달러/배럴을 각각 기록하였음.

원유수출가격동향(배럴당 가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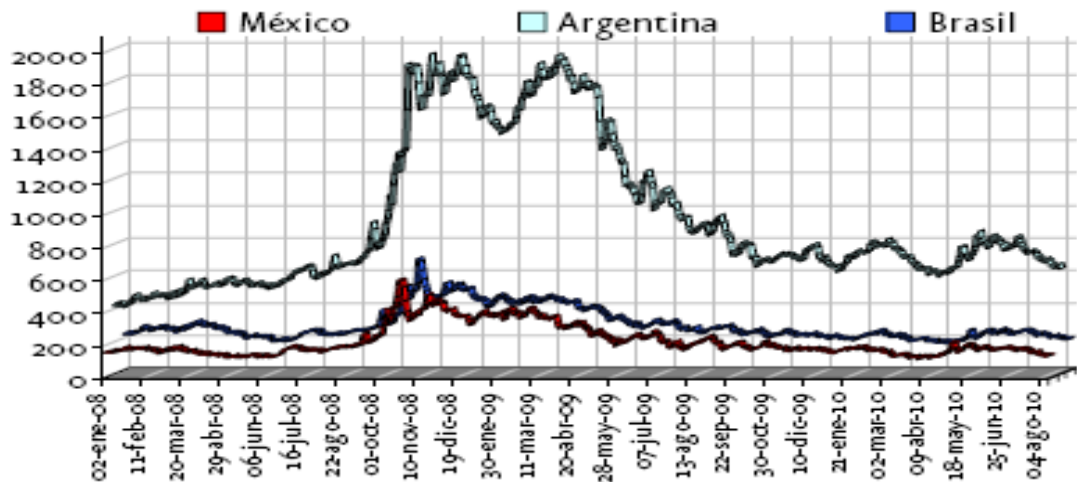
자료 : PEMEX

□ 멕시코 EMBI+ 지수 4bp 하락

- 8월 13일 현재 멕시코에 대한 J.P. Morgan 이머징마켓 채권지수 (EMBI+)는 전주 대비 4bp 하락한 141bp를 기록하였음. 반면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채권지수는 각각 1bp, 8bp 하락하여 620bp 및 200bp를 기록.

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(EMBI+)

(단위 : basis point)



자료 : JP Morgan

2.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

□ Banamex은행, “2010년중 인플레이율은 4.6% 전망”

- Banamex은행은 2010년 중 멕시코 인플레이율은 4.6%에 그칠 것으로 전망. 동 은행은 7월중 인플레이율은 바닥에 도달하였으며 남은 기간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가격,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기후 이상 등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에 따른 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4.6%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.

□ Banamex은행 “멕시코 고정자산투자율 건실한 성장을 보여줘”

- Banamex은행은 2010년 5월중 고정자산투자율이 연율로는 6.2% 성장하였고, 월로는 1.1% 성장하였는데 이는 전월보다 크게 높은 수치라면서 전년 동월의 10.9% 감소한 것에 비하면 멕시코 경제가 2009년도의 경기 침체의 늪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고 있는 것을 고정자산투자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.